



즉시 배포용: 2019년 11월 19일

ANDREW M. CUOMO 주지사

시러큐스 대학 이사회(SYRACUSE UNIVERSITY BOARD OF TRUSTEES)에 캠퍼스
중요 범죄 증가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ANDREW M. CUOMO 주지사 성명서

"이 나라는 많은 이슈에 직면해 있지만, 그 최상단에는 다양성을 힘보다는 약점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인종, 민족, 종교적 분열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전국에서 목격하고 있으며, 심지어 위대한 뉴욕주 전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유대주의, 반 아프리카계 미국인, 반 이슬람계 미국인, 반 성소수자(LGBTQ), 반 아시아계 미국인, 반 이탈리아계 미국인 사건 등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프라우드 보이즈(Bigot Boys)(비곳 보이즈(Bigot Boys)라고 불려야 마땅할)와 같은 혐오 단체가 이번 주 뉴욕시에서 발생한 사건의 배후임을 주장했습니다. 우리의 대응은 반드시 '무관용(Zero Tolerance)'이어야 합니다.

시러큐스 대학(Syracuse University)의 혐오 활동은 시러큐스 대학(Syracuse University) 공동체뿐만 아니라 뉴욕이라는 더 큰 지역사회에서도 가장 끔찍한 종류의 것입니다. 뉴욕주는 이렇게 끔찍한, 무모하고 비난하는 행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해왔으나, 시러큐스 대학은 이러한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뉴욕 주요 대학의 캠퍼스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은 이러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는 Syverud 총장이 이 문제를 처리하면서 자신감을 불어넣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시러큐스 대학(Syracuse University)의 이사회(Board of Trustees)가 즉시 효과적으로 이러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감독자를 초빙하여, 사실 관계를 이사회 및 뉴욕주 경찰 혐오 범죄 태스크 포스(State Police Hate Crimes Task Force)와 소통하며, 특정 사건 및 행동 모두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적인 전략을 권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저는 다른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하여 시러큐스 대학(Syracuse University) 학생들에게 디지털 방식으로 보급되는 백인 우월주의자 '선언문'에 대한 최근 보고서를 포함하도록 태스크 포스에게 기존 조사를 확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배운 것처럼 증오와 편견에 대한 이러한 전시는 강력하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현실과 인식 수준 모두에서 이행되어야 합니다. 시러큐스 대학(Syracuse University)과 리더십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즉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귀하의 의무입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